

전남도 농축산 호우 피해 농가 지원 총력

조사료·깔짚 612t 지원하고
구레·곡성 침수 축사 방역
말기묘 850만주 공급
6개 업체 참가 농기계 수리



전남도는 농기계업체 6개사의 지원을 받아 집중 호우 피해 지역 침수 농기계 무상 점검을 진행 중이다. 농기계업체 관계자가 곡성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집중 호우 피해 농가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축산 농가 조사료(粗飼料) 지원, 말기 농가 모종 공급, 침수 농기계 무상 점검 및 수리 지원, 농가 방역 지원 등 지원책을 잇따라 쏟아내며 시름에 잠긴 농가 돕기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축사 침수와 한우 폐사 피해가 집중된 섬진강 하류 곡성·구례지역에 조사료(건초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와 깔짚 612t을 긴급 지원한다.

지난 7, 8일 집중 호우와 섬진강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해 전남지역 135가구 한우 농가에서는 가축 침수 피해 5652두, 폐사 843두 피해를 봤다. 곡성·구례 지역은 전남 한우 농가 피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조사료·깔짚 긴급 공급 조치는 최근 곡성군과 구례군 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 긴급지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벼집과 국내산 조사료 10일분, 완거·톱밥 등 깔짚(축사 등록 면적 50% 지원)을 전남

도 녹색축산육성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495t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곡성·구례·담양 축협에 1800만원 상당의 톱밥 60t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축협장 운영협의회는 곡성·구례 축협에 국내산 조사료 57t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방역 지원도 벌인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호우 피해가 큰 구레·곡성·함평 등 침수 피해 축산농가 방역을 지원한다. 긴급 소독 지원을 비롯해 가축 조기 출하 지원을 위한 현장 질병 검사, 소 결핵병 등 가축 질병 신속 검사 등

을 지원 중이다. 가축 질병 방지를 위한 예찰과 홍보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 16일에는 전남 수의사회와 사·군 공수의사와 합동으로 수해지역 가축 관리, 치료 지도와 전염병 확산을 위한 방역활동, 방역 취약지역 소독약품 지원, 진료 봉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침수 피해 지역 말기 묘를 지원한다.

이번 집중 호우 당시 말기 주산지인 담양·곡성 지역 말기 자가 육묘하우스 곳곳이 침수 피해를 봐 9월 초부터 시작되는 농가의 말기 재배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담양·곡성군과 합동으로 말기묘 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말기 모종 1700만주 가량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전국 육묘장과 농가들이 육묘 중인 잉여 묘 850만주를 수해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식재 거리 조정과 자가 묘 생산 기술 지원 등 대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기계업체와 손잡고 긴급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로 진행 중이다.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LS엔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등 6개 농기계 업체가 참여하며, 다음달 11일까지 봉사는 이어진다. 피해가 큰 구레·곡성·담양·나주 등 4개 지역을 우선 살핀 뒤 나머지 피해지역도 순회 점검할 예정이다. 농기계 업체들은 기사 1-2인, 차량 1대로 구성된 1개 지원반을 구성해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반은 침수 피해 농기계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일부 소액 부품은 무료로 교체한다.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옮겨 수리를 하게 된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농가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증가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9·10월 고택 체험행사
28일까지 참가자 모집

(재)전남도관광재단은 18일 "2020남도 고택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1차 체험프로그램에는 (사)전남중가회 소속 6개 증가가 참여한다. 해남 해남윤씨 어촌은증가, 담양 장흥고씨 학봉증가, 담양 제주양씨 청암증가, 담양 홍주송씨 어요당증가, 장흥 장흥위씨 위정렬증가, 강진 원주이씨 백은동증가 등이다. 체험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증가별 1회씩,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회당 10명 내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식사와 차량,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고택에서 증가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명소 및 역사유적지 탐방을 하게 된다.

전남도 홈페이지(jeonnam.go.kr) 또는 (재)전남도관광재단 홈페이지(ijnto.or.kr)에서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hskim3212@ijn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건철 (재)전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더 많은 증가와 협력해 매력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남 증가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재단은 10월 중 도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차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는 관광재단 남도 고택 체험프로그램 담당자(061-802-2141)에게 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최우수상

전남도는 18일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전시 참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는 국내 여행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지난 16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서 전남도는 코로나 19로 변화한 관광트렌드를 반영, '슬기로운 안심여행'을 주제로 관광 정보를 소개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전남도 홍보관에 소개된 주요 관광 정보는 거리 두기 좌석제로 안전하게 운행 중인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와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즐기는 '남도 힐링브릿지 여행', '슬기

로운 안심여행, 남도 여름여행' 등이다.

광주-전남 통합 관광활인카드 '남도패스'와 '오감만족 전남여행', '수목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 '템플스테이' 등도 알렸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 19로 침체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고매를 바짝 쬐면서 '슬기로운 안심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안심 여행지 전남에서 힐링여행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남 시·군 가운데 해남군이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해남군은 비대면 관광, 해남시티투어버스, 단체 및 MICE 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관광 홍보활동을 벌였다.

/김형호 기자 khh@

청년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웹툰작가·애니메이터 추가모집

전남도는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 웹툰 작가 및 애니메이터를 추가 모집한다.

프로젝트는 애니메이션 및 웹툰 분야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콘텐츠 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추가 모집 규모는 95명이다. 국비 지원을 받아 2년간 채용 기업에 1인당 인건비 등으로 월 230만원을 지원한다. 4대 보험도 보장한다.

모집 대상은 순천시 거주자로 애니메이션·웹툰 관련 일을 희망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19일까지 '콘텐츠산업청년일자리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홈페이지(www.jani.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곡성 수해현장 복구 돕기 구슬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최근 집중호우로 커다란 피해를 본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를 도왔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직원 15명은 수해를 당한 주민 집을 방문해 쓰레기를 치우고 침수된 실물살이를 씻고 정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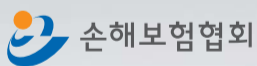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 봉사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추진 방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수리해 주던 방식을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해 시급성 등을 고려한 뒤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수리, 주거환경 개

선 등 생활불편 개선 비용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도시권과 농어촌권의 복지수요 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게 긴급생활안정금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전등·수전 교체 등에 대한 긴급 수리비용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비대면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 생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